

腦卒中

그 予防과 治療對策



柳 東 俊
(慶熙醫大 교수)
(本協會 홍보 이사)

hemorrhage)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의 두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과거에 흔히 腦溢血이라 불렀던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 등으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腦속으로 모여서 뇌조직을 압박하는 것이고, 과거에 腦軟化라고 불렀던 뇌경색은 血栓이나 栓塞 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못해 그 부위의 뇌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시 뇌출혈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과 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로, 뇌경색은 뇌혈전증(Cerebral thrombosis)과 뇌전색증(Cerebral embolism)으로 각각 두가지로 다시 세분되어 결국 뇌졸중은 전문적으로는 4가지의 병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기타의 상태의 뇌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고혈압성 腦症과 일종의 뇌전색의 전구증상이 되는 一過性腦虛血發作症이 있어서 이 두가지를 포함하여 말하면 넓은 의미로 뇌졸중은 6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다

IV. 병형별 주요증상

① 뇌실질내 출혈
뇌출혈의 대표적인 출혈이 되

은수상태는 짧으면 수시간, 길면 수일간 계속된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대개 24시간내에 깨어나지 못하면 위험하다. 혼수상태에서 사망하는 환자는 약 60~70% 정도이다. 때로는 여러해 동안 혼수에서 깨어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는수도 있다. 혼수에서 깨어나면 반신불수가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70~80% 정도는 치료를 잘하면 걸을 수 있게된다. 6개월안에 회복이 안되면 대체로 가망이 없는 것으로 출혈이 소규모일 때는 실신이나 졸도하는 일은 없이 손발이 안움직여 진다거나 입이 틀리거나 한다.

② 지주막하 출혈

본 출혈은 다른 뇌졸중에 비해 비교적 연령이 젊은 층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의식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두통이 매우 심하고 오심, 구토가 있으며 뇌막 자극증상이 심하다.

대개 발생시 그 증상을 보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마치 도끼로 머리를 찍어 패는듯한 그런 심한 두통이 머리 한부분에서 시작되면서 머리가 정말 터질듯이 아프고 동시에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③ 뇌혈전증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서 老化와 함께 뇌동맥경화는 심해지는데 여기에 고혈압까지 있으면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작은 分枝에까지 지방질이 침착되어 그 내강이 좁아지고 막혀 증상은 심각해진다. 즉 동맥혈액의 공급이 끊겨 뇌조직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병이다

저혈압인 사람에서도 뇌혈전이 일어난다. 발작도 뇌출혈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의식을 잠시 잃을 때도 있다.

마비도 서서히 나타나 번져나간다. 혀가 마비되면 말이 잘 안되고(失語症), 행동도 부자유해지고(失行症), 시야가 반만 보이는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갑자기 혼수에 빠지는 수도 있다. 이런 때는 뇌출혈과 인듯 구별이 잘 안된다.

뇌혈전은 밤에 자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낮에 발생하는 수도 있는데, 주로 수분을 많이 잃어 탈수상태가 되었을 때다. 이를테면 더운 여름 땀을 몹시 흘리고 나서 이 병이 발병하기도 한다.

④ 뇌전색증

이는 뇌출혈과 비슷하게 갑자기 발병하며 증상도 뇌출혈과 비슷하다. 그러나 마비같은 증상이 발병직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빨리 좋아져 가는 경향을

개요

이외의 넓은 의미의 기타의 뇌졸중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뇌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다.

심한 두통, 오심, 흔들리는 시야, 졸리움과 의식혼탁 등이 진행되면서 혼미상태나 혼수에 빠지게 된다.

⑥ 일과성뇌허혈발작증
이것도 그밖의 뇌졸중의 한 범주에 넣어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여 일시적인 뇌순환부전증이며 일종의 뇌경색의 전구증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면 가령 한쪽 수족에 갑자기 약간 힘이 빠지거나 우둔해져서 일상하던 일을 잘 못하게 되었다가 몇시간내로 회복되는 경우이다.

V. 뇌졸중의 치료원칙

치료는 원칙적으로 발병직후 급성기에 응급(구급)처치로 시작되는 「일반치료」와 이 시기를 지난후 환자의 편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요법같은 「재활치료」와 재발을 막거나 역제를 위하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예방치료」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개요”편에선 그 설명은 생략한다.

VI. 예방

뇌졸중은 예고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으로 世人들은 생각하고 있다.

뇌졸중은 한번 발작이 일어났다 하면 사망을 초래하거나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할 수만 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사실은 뇌졸중은 결코 졸지에 기습해 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뇌졸중은 그 발병은 갑작스럽지만 이의 돌발에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일찍 발견하여 철저히 치료하여 뇌졸중 발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겠다.

腦血管疾患 사고등 腦血管장애의 總稱 高血圧·動脈硬化症의 早期發見이 最善

는 뇌실질내출혈은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 잘 돌발하는데 밤에 잠자고 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 활동하는 낮동안에 갑자기 발생한다.

이 뇌실질내 출혈의 발생시 처음 증상을 보면 대개 갑자기 쓰러지면서 첫마디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예가 많고 그런 다음엔 잘 토한다. 그와 동시에 몸의 반신이 말을 듣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의식은 보통 수분에서 한두시간 동안에 점점 혼탁해 진다. 환자가 깊은 혼수에 빠져 들어가면 심한 자극을 몸에 주어도 반응하지 않게 되며 호흡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거칠어지고 1분간에 30회 이상으로 빠르게 숨을 쉬는 경우가 있다(이를 중추신경성 과 호흡이라 함).

발병직후 한시간내로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들어가 계속되면 대개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수가 많고 의식장애가 처음부터 그리 깊지않고 24시간을 경과한후 소리를 내어 불렀을 때 반응이 있을 정도면 생존할 확률이 꽤 높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의식이 좋은 환자는 대개 예후가 양호하다.



드물지만 의식장애가 시작과 함께 올수도 있으나 한두 시간후에는 대개 회복되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예가 많다.

반듯이 누워있는 환자의 뒷머리를 검사자가 손바닥위에 올리면서 고개를 앞으로 굴곡시키면 목에 경직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다리를 쭉 뻗은채로 위로 들어 올리면 어느 각도까지는 올릴 수 있으나 계속 올리면 아파서 그 이상 못 올리게 된다.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뇌전색은 주로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승모판협착증같은 판막증, 심내막염이나 또 심방세동같은 부정맥, 그리고 폐·기관지병 등을 앓던 환자에서 잘 일어난다. 따라서 이병은 신체의 다른 곳에 원인적인 병이 있어 생기므로 원인질환을 먼저 찾아야 한다.

⑤ 고혈압성뇌증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4가지

I. 死因의 首位를 차지하는 腦卒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선 최근 사망원인의 제 1위를, 구미에선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死神, 뇌졸중은 도대체 어떤 병일까?

복병처럼 모르게 매복해 있다가 일격에 致命打를 주는 뇌졸중은 사실 痛보다도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훨씬 높아 정말 「무서운 死神」으로 불리울만 하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15만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I. 뇌졸중이란 뇌혈관질환·사고의 총칭

의사를 뿐 아니라 항간에서 世人들도 널리 쓰고있는 뇌졸중(C. V. A. 또는 Stroke)이라는 병명은 뇌혈관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는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병을 말한다.

구미각국에서도 Stroke 또는 Apoplexy 등으로 불리워지는 이病, 즉 腦卒中이란 말은 졸지에 쓰러진다는 뜻인 희랍어 「Apoplexia」란 말에 해당되고, 역시 영어의 Stroke란 말도 「Struck with Violence」라는 語意를 가진 희랍어에서 연유된 것인데, 번개나 벼락같은 강타로 야기되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옛날부터 「바람 맞았다」, 「뇌일혈」 등의 뜻으로 中風이라고 불리 왔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뇌혈관질환사고 또는 뇌의 다른 병변까지를 포함하는 「뇌혈관장애」의 총칭을 말하는 듯하다.

III. 뇌졸중의 분류

뇌졸중(Cerebro Vascular Accident)은 흔히 뇌출혈(Cerebral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으로 고생되십니까? “비타민진”으로 생활에 자신을 가지십시오.

日本 三共社에서 개발한 비타민진은 당뇨병에 의한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치료제입니다.

당뇨환자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은 당뇨성 신경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1. 팔다리에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2.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3. 발기부전증이 나타나며 배뇨가 곤란해진다.

이런 증상은 신경조직의 손상이 원인 이므로 신경조직을 재생시켜 주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진은 당뇨병으로 손상된 신경조직에 활력을 줍니다.

비타민진에는 당대사를 촉진하며 신경세포의 ATP대사에 작용하는 벤포티아민,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엽산 피리독신, 신경핵의 합성 및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시아노코발라민 등의 신경비타민이 고단위로 함유되어 있어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 비타민진 50mg 1캡슐당 성분·함량
- 벤포티아민 69.15mg
- 엽산 피리독신 50mg
- 시아노코발라민 500µg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 치료제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슐 22,000원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신문명, 날짜, 제품명을 영서에 적어 보내십시오.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전화문의처: 한일약품 학술과 서울464-0861(교)584

